



▲ 평화기원법요식 가는 길 5월26일 히에이잔 엔라쿠지 근본종당에서 열린 평화기원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불교 대표 자승스님(앞줄 가운데)과 일본불교 대표 미야바시 스님(앞줄 오른쪽)이 법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韓日 불교인사 한자리에 5월26일 평화기원법요식이 끝난 후 엔라쿠지 근본종당 앞마당에서 양국 불교계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韓日 불교 소통·화합... 인류평화에 기여하자”



▲ 문광부 장관 축하 평화기원법요식에 참석한 조창희 종무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하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제3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지난 5월25일부터 이틀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한 일 불교의 우호증진을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자리였다. 대회주제는 '양국 불교를 배우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한 경복궁 관월당을 한일 불교계의 공동노력에 기반해 환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한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기도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미야바시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등 양국 불교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제31차 한일불교대회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만나본다.

일본 교토=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학술대회도 하고 5월25일 오후1시30분 엔라쿠지 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동국대 교수 해원스님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일본측 대회사 평화기원법요식에서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시 스님이 대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 한일불교 '화합' 5월25일 오후6시 교토 브라이튼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오른쪽)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시 스님이 선물을 교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 환영만찬도 하고 5월25일 교토 브라이튼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한 한일 불교계 대표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초기불교 VS 선불교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특색은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 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 변형 | 296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증음에서의 해탈법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증음의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축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 변형 | 144쪽 | 값 8,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